

## 미군 이메일 수백만 건 러 동맹국으로



▲ 도메인 정보 오타로 미군의 민감한 정보 상당수가 엉뚱한 곳으로 전송됐다. 사진=shutterstock

미군에서 도메인 정보 오타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러시아의 동맹국인 말리로 대거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연합뉴스'가 CNN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국방부 직원들이 받아야 할 이메일 수백만 통이 도메인인터넷 주소 오타로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졌다.

당초 미군이 소유한 'MIL' 도메인의 계정으로 보내져야 하는 메일인데 발신자가 이를 말리의 국가 도메인인 '.ML'로 잘못 입력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전송된 것이다. 말리에서는 과거 자국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오전송된 이메일에는 미군 시설의 지도나 고위 장성의 출장 계획, 신원 관련 문서, 비밀번호, 의료나 재정 관련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오전송된 이메일은 정부 밖에서 보낸 것도 있지만 일부는 정부 내부 직원이 발신자였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13년부터 말리의 국가도메인을 관리해온 네덜란드 기업가인 요하네스 쥐르비르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쥐르비르는 올해 초부터 말리 주재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경고했으며, 말리 국가도메인 관리업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 “중국계 미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더 호의적”

중국계 미국인이 중국보다 대만을 더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전날, 지난해 7월5일부터 올해 1월27일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7,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계 미국인 10명 중 6명(62%)이 대만을 호의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중국계 미국인은 미국(72%), 일본(63%), 한국(55%)에도 중국보다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0명 중 4명(41%)만이 중국을 좋게 인식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계 미국인은 유일하게 일본계, 한국계, 대만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인도계 미국인과는 다르게 출신 지역(고국)을 놓고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 중국계 미국인의 62%는 대만을 호의적으로 인식한다. 사진=shutterstock

다만 중국계 미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다른 아시아계 집단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았다. 아시아계 전체 집단에서 10명 중 2명(20%)이 중국에 호의적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중국계와는 격차가 컸다.

중국계 10명 중 4명(41%)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동안 2위를 보인 필리핀계 미국인은 2명(19%)만 호감을 표시했다. 한국계는 8%, 대만계는 2%만 중국을 좋게 인식했다. 아시아계 전체 집단 10명 중 5명(52%)은 중국에 비판적이었고, 3명(26%)은 뚜렷한 의견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주소 기반 표본 추출(ABS) 온·오프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포인트다.

## AI 때문에 실직으로 내몰리는 콜센터 직원들

콜센터 직원들이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실직 위협에 놓였다.

20일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챗GPT는 사회 전반방위로 진출했다. NYT는 이에 많은 사람에게 AI는 자신의 직업을 폭발시킬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데 일부는 이미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3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서비스 분야가 첫 번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비대가 올해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콜센터 근로자 대부분은 이미 자신들의 업무 일부가 자동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응



▲ 인공지능으로 인해 콜센터 직원들이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답자의 거의 3분의2는 봇(자동정보검색 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2년 이내에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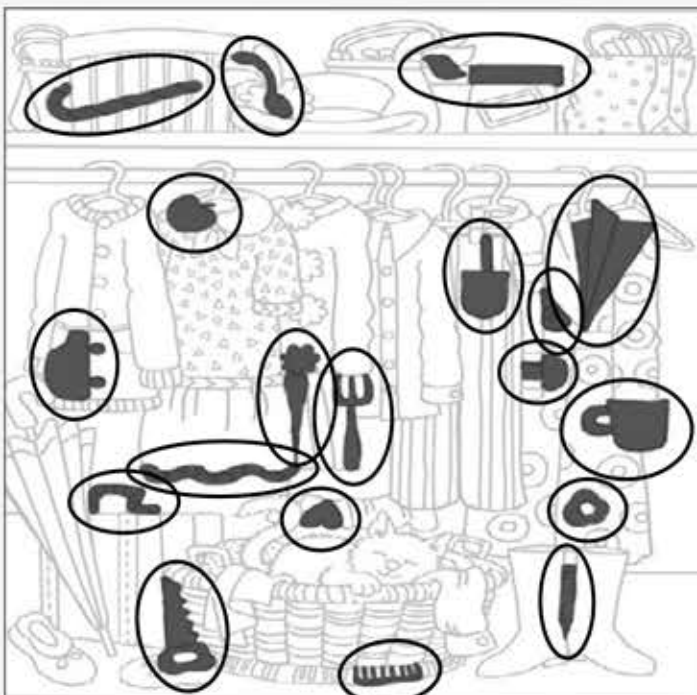
NYT는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여성 이룬더 세러드의 근황을 통해 AI와 싸움을 벌이는 콜센터 직원의 애환을 조명했다.

세러드는 호텔 객실 청소원 등을 거쳐 AT&T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며 생활의 안정을 찾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AT&T는 고객을 전문 상담원에게 연결하는 일,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 여러 부분을 AI 기술에 맡겼다.

AI의 역할은 자동화된 기본적 업무 처리를 넘어 인간의 업무를 지적하거나 고객에게 쓸 표현을 제안 또는 지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숫자퍼즐 정답

4	2	7	8	6	9	5	3	1
5	6	8	1	3	4	9	2	7
9	3	1	2	7	5	8	6	4
1	7	4	9	8	3	2	5	6
2	8	3	4	5	6	1	7	9
6	9	5	7	1	2	3	4	8
8	5	2	6	9	7	4	1	3
3	1	6	5	4	8	7	9	2
7	4	9	3	2	1	6	8	5